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BPSU
수업	수업은 오전8시~오후5시 까지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오전8시-오후12시까지 2시간 1:1수업 / 2시간 그룹 수업(토익스피킹·MMC)이 있고, 점심 식사 후 오후1시-5시 까지 마찬가지로 2시간1:1수업 /2시간 그룹 수업(토익스피킹·Face to Face) 으로 이뤄진다. 고등학교 시간표랑 비슷하고, 1대1수업이여서 졸려도 진짜 잘 수가 없는?!!그런 뻥센 시간표 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수업 있는 날에는 전 날에 일찍 자거나, 피곤하지 않게 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수업 도중에 사전 이용이 금지 되어있어서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선생님들도 학생이 대답할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 가끔 일상생활얘기도 하면서 수업은 나름 재미있었다. 기숙사와 교실이 한 건물이라 이동하기는 편하지만, 쉬는 시간이 많이 짧다는 느낌을 받았다.
Activity	매주 목요일 오후3시-5시에는 수업 대신에 식당에서 게임을 진행했다!! 첫 주에는 서로 알아가기 게임 , 둘째 주에는 팀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보냈고, 세 번째 주에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스포츠데이가 있어서 팀으로 미션을 하는 활동을 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Black day, socks day, check day로 주제를 듣고 미리 준비해서 금요일날 입고 돌아 다니면 된다. 그리고 토요일은 Activity day여서 학교자체에서 Buddy 쌤들이랑 함께 다 같이 놀러간다. 12/29 토요일에는 원래 리조트를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좋아서 취소되고, 클락 SM 쇼핑몰을 가게 되었고, 1/1 화요일은 필리핀 공휴일 이여서 1/5 토요일에 갈 요트 투어를 화요일날 진행하고, 토요일엔 화요일 수업을 대신 하였다 πππ 그리고 1/12 마지막 토요일에는 White coral beach 리조트를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즐거웠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의 미세먼지+ 추운 날씨에 비하면 필리핀은 정말 환상적인 날씨였다. 모든 쌤들이 필리핀은 겨울에 와야 좋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정말 알 것 같았다. 언제나 항상 날씨가 맑고 깨끗했고, 엄청 덥지도 않은 선선한 여름 날씨로 해질녘에 수빅베이에 가면 다양한 색감의 예쁜 선셋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안에는 항상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기숙사 에어컨이 너무 썰서 잘 때가 좀 추웠지만, 코드를 뽑고 끄고 자거나, 여분의 긴 옷을 걸치고 자면 괜찮았다.
안전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쇼핑물 및 식당 어딜 돌아다녀도 언제나 한국인 인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사진을 찍어 달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적응하면 또 괜찮아진다. 학생 사 2/4인 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만,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마다 있다. 방에 들어가면 아무 것 도 없으므로 샴푸 및 린스 드라이기등 생활용품은 꼭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월 수 금 마다 청소와 빨래를 해주셔서 편했지만, 빨래는 옷을 빨면 뭐가 묻어서? 오거나 가끔 다른방과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방마다 벌레가 케바케로 나온다. 특히 바퀴벌레, 도마뱀 ,개미들이 주로 나오는데 어떤방은 자주 나오고 어떤 방은 또 아예 안 나오는 곳도 많았다. 벌레 나올 때는 그냥 가드를 부르거나 벌레 퇴치제 등 뿌리면 된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한식을 매일 먹었다. 필리핀 분들이 해주시는 한식 이었는데도 국물과 반찬 맛은 한국이랑 비슷했다!! 그러나 언제나 급식의 양이 적어서 먹어도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았고, 먹고 방에와서 또 과자나 빵으로 배를 채우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참치 통조림이나 김, 고추장등 가져가서 같이 먹는게 좋을 것 같다. 본인은 가져가지 않아서 친구꺼 얻어먹었는데 가져올 걸 ,, 후회됐다!! 그리고 저녁은 몇 번 빼고 거의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필리핀에 은근 맛집이 많다. 코코라임의 시푸드 라이스 누들/ 제리스 그릴의 불랄로, 그린망고 웨이크/ 페퍼런치 25번 메뉴+고기추가 /엑스 프레소의 빅벤피자 !!! 한국에 와서도 먹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난다. 저녁은 이렇게 나가서 필리핀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통	FB 나 택시를 이용했다. FB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FB와 택시 모두 자주 다니지 않아서 학교에서 올롱가포 시내로 나갈 때 어려움이 항상 많았다. 가드한테 FB나 택시 예약해달라 하면 항상 친절하게 예약 잡아주신다. 생각보다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신창교통이 좋게 느껴지기는 또 처음이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경비	400,000	달러로 환전해감
	약 53,525	2500페소 ATM기에서 뺐음
	57,000	카드 사용
합계	1,250,525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방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해서 쪼리같은 여분의 슬리퍼와 처음에 방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니, 한국에서 최대한 세면도구, 멀티탭, 드라이기 등 생활용품 챙겨가시는게 아무래도 페소 아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올 때는 거의 버리고 온다는 생각으로 쓰던 거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 그리고, 수영복, 후드집업,(에어컨 나을 때 추워용)! 진짜 필수템 입니당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대표님이 환전 4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40만 해갔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싸서 그런지 뭔가 더 쓰게 되고, 저녁도 거의 나가서 먹고, 교통비를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모자랐어요! 마지막 주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돈이 부족해서 ATM기에서 돈 뺐거나, 서로한테 빌려서 빚이 늘어났다는ㅠ 그래서 진짜 여자학우분들 환전 할 때 50 하시고, 가서서 카드 되는 가게에서는 카드 쓰셔서 (현금이라 카드 번갈아 쓰세요!) 마지막 주에 한국에 사갈 선물, 선생님들 선물 살 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세요ㅠ(딱히 지른 것도 없는데 진짜 돈이 없었어용) 선생님들은 총 8분인데, 저는 토익 스피킹 선생님이 오전,오후 두 번 다 같은 선생님이여서 7분 이였어요! 선생님 선물은 명동 같은데서 한국어로 써져있는 모자 같은 거 사가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필리핀에서 사서 쌤들한테 드릴 선물? 같은게 많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프렌즈 등 캐릭터 그려진 저렴한 파일이나 공책 같은거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과자나 라면 등도 선물로 괜찮을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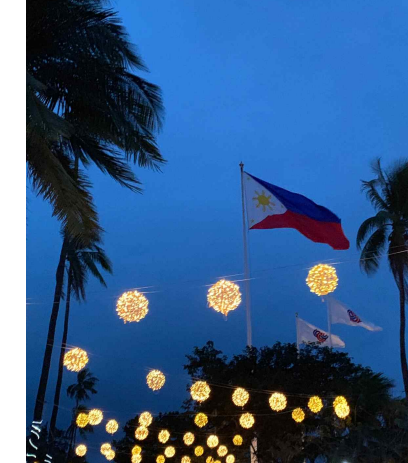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 가기 전 했던 수많은 고민들, 걱정들과 달리 필리핀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친절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울었다 ㅠ 다른 나라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리워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거 같다.
비록, 주말을 제외한 매일을 8시간동안 영어로 말하고, 공부하기가 힘들었지만, 나름 영

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글로 쓰는 영어 보다는 말하는 생활 영어가 좀 늘어 온 거 같다. 또한 1대1수업이 4시간이나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한명 한명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이 많고, 수업이 선생님과 학생 둘이 얘기하고 만들어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선생님들과 더 빨리 친해 질 수 있었던 거 같다. 또한 선생님들과 얘기 하면서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영어공부에서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4주의 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내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도 많았고, 몸으로 느꼈던 부분도 많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한달 동안 살면서 배우고 느낀게 많아서 보람찬 4주를 보내고 온 것 같다. 훗날, 단기어학연수가 아닌 여행으로 필리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단기 어학연수 였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 베이	White Coral Beach
	
점심 (학교 식당)	올롱가포 시내



필리핀의 선셋



MMC 그룹 멤버